

기획예산처·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 AI,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논의
- 바이오 분야, 일률적 규제 완화보다는 부문별 특성에 따른 규제 필요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6.4.9.(목) 「제4차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 위원회 개요 >

- (기능)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2012년~)
 - (위원) 권오현 위원장(前삼성전자 회장),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
 - (분과) ①혁신성장반*(AI, 바이오 등 주요산업·경제), ②미래사회전략반(인구, 교육, 노동, 기후 변화 대응 등), ③거버넌스개혁반(정부혁신, 규제개혁, 균형발전 등) 등 3개
- * (혁신성장반, 8명)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분과장), 구자현 KDI 연구실장, 김미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 교수,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

이번 회의에서는 AI,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권오현 위원장은 기술개발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의장은 AI를 개별산업과 소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산업으로서 역할을 구분하여야 하며,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로봇과 헬스케어 등에 AI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리스크가 높은 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초기 수요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윤희 산업연구 선임연구위원은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는 일률적 규제 완화 보다는 레드(보건·의료), 그린(GMO), 화이트(바이오에너지) 등 부문별 특성에 따른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예시) 레드 : 규제 완화, 화이트 : 규제강화(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등)

위원들은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금융의 성과평가 기능 강화 등 운영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논의하였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박철건 (044-214-1610)
		담당자	사무관	박승환 (niceguystar@korea.kr)
		담당자	사무관	어우주 (hidwnr@korea.kr)
	미래전략기획실 혁신경제전환과	책임자	과 장	신명석 (044-214-1630)
담당자		사무관	김재현 (z56543@korea.kr)	

